



**K-water는 어떻게  
워터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을까?**

K-water는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디지털워터솔루션 기획부터 개발·유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앞당기고, 국내 물산업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63

2023년 6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water는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워터솔루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물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가람플러스



ilovekwater

#kwater워터라운드 좋아요 이벤트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워터라운드를 검색하고 <kwater워터라운드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워터라운드



#디지털워터플랫폼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워터라운드를 검색

- <kwater워터라운드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6월 25일  
선물 발송일 7월 15일경

※ 7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



#wateround





#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6 | Vol. 663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6월 1일  
**통 권** 663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08 제로여행**  
우리가 몰랐던 대구를 만나다  
자연 생태 탐방에서 호국 안보까지
- 14 제로상점**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대구 <제로웨이스트샵 예스>
- 16 제로라이프**  
나의 제로웨이스트  
지수가 궁금하다면?
- 18 사람이 애쓰지(ESG)**  
지구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윤하
- 22 지구보고서**  
'1만 km 떨어진 바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24 친환경 지구여행**  
생동감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멕시코
- 28 두잇두잇**  
택배 상자와 나무젓가락으로  
친환경 수납 소품 만들기
- 30 건강처방전**  
소중한 치아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 32 수(水)타벅스가 간다**  
소통과 봉사가 함께한 뜻깊은 시간,  
달달한 커피로 행복한 하루
- 36 숫자로 보는 K-water**  
전 세계 디지털 물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워터플랫폼 워터라운드
- 38 K-water 리포트**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디지털워터플랫폼  
워터라운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 42 K-water ESG**  
시민들의 힐링 아이템  
옥외급판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다
- 44 어느 멋진 날**  
알록달록 세상에서 나의 색을 찾아보자  
동기들이 함께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 48 마음상담소**  
비대면을 선호하는 직원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
- 50 퀴즈있수다**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K-water는 디지털 물기술 확보와 물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51 이슈있수다**  
신자린고비 잔테크 거지방
- 52 K-water 포커스 ①**  
철저한 준비로  
홍수기를 대비하다
- 54 K-water 포커스 ②**  
K-water 홍보대사 '수플'  
첫걸음을 내딛다
- 56 News**
- 58 수놓은 문화**
- 60 방울이와 DIY**
- 62 K-water SNS**



# 우리가 몰랐던 대구를 만나다

## 자연 생태 탐방에서 호국 안보까지

대구광역시는 무더위 때문에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도시다. 그러나 여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구광역시의 모습은 다르다. 남한에서 가장 긴 낙동강이 도심을 축축이 적시고 비옥한 땅과 청정한 숲, 습지까지 아낌없이 내어준다. 이 풍요로운 자연은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넨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일러스트\_이신혜



**자연 생태의 보고, 낙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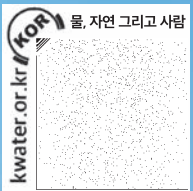
강은 은유적이다. 시간과 세월, 나아가 역사까지도 강의 흐름에 견주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강물처럼 순리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바쁘게 사느라 때때로 이런 단순한 진리를 망각할 때가 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더진 망각의 회로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닐까?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괜찮다. 잠시 고개를 들어 푸른 세상을 바라보거나, 도심과 가까운 자연 속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낙동강(506.17km)은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산을 뚫어 물길을 내고 경상북도 구석구석을 적신다. 이윽고 대구광역시 사문진에 이른다. 사문진은 조선시대에 무역을 했던 '왜물고(倭物庫)'가 있던 나루였다. 또 근대에 해외 선교사들은 이 물길을 이용해 한반도에 최초로 피아노를 들여왔다. 이후 다리가 놓이면서 사문진은 나루터의 기능을 잃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와서 주막촌이 들어섰고, 낙동강에는 유람선이 오간다. 사문진 주막촌에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까지 생태탐방로가 놓였다. 총연장 1km 남짓한 이 길은 화원동산의 벼랑을 따라 물 위를 걷는

데크 길이다. 구간은 짧지만, 볼거리는 풍성하다. 움푹 파인 하식애와 그 주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 수면을 박차고 치솟는 물고기들과 녀석들을 노리는 왜가리들까지, 특히 푸른 달성습지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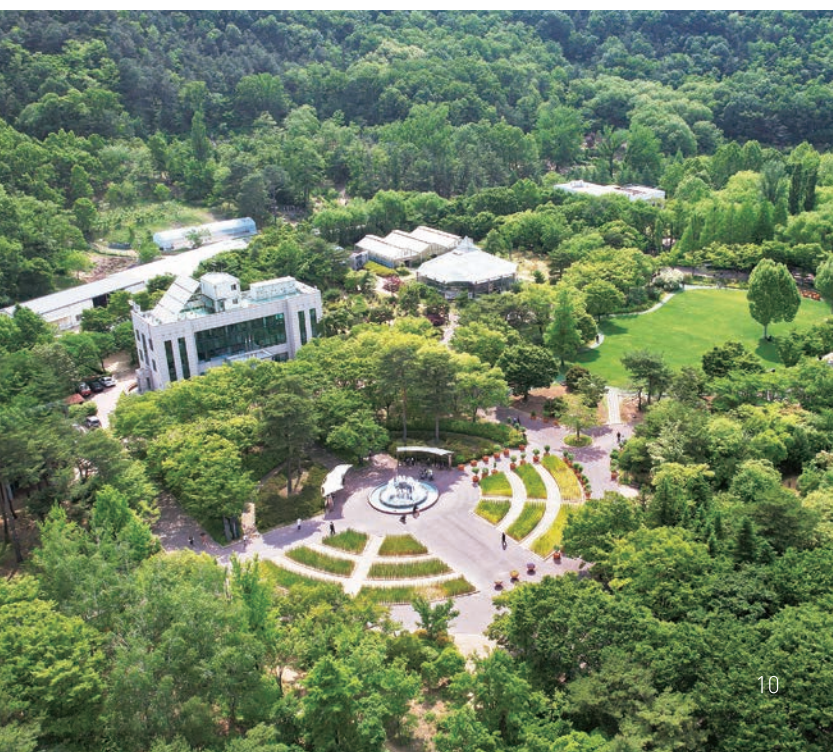
생태탐방로 끝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 있다. 그 앞은 강폭이 넓으며 강 중간에 섬이 길게 누워있다. 이 하중도 오른쪽은 금호강이고 왼쪽은 낙동강이다. 달성습지는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달성습지에는 흑두루미와 맹꽁이를 비롯해 520여 종의 생물이 산다. 이곳이 생물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매우 큰 이유다. 달성습지의 형성과 서식하는 생물, 낙동강에 관련된 자료는 생태학습관에서 만날 수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시청각을 활용한 다양한 자료가 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 독특한 건축물이 있다. 마치 육지로 올라온 고래를 닮은 디아크문화관이다. K-water가 운영하는 디아크문화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하니 라시드가 디자인했다. 디아크는 강 표면을 가르는 물수제비, 문밖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 등 자연의 모습과 한국 전통 도자기의 미려한 곡선을 표현한 것이



디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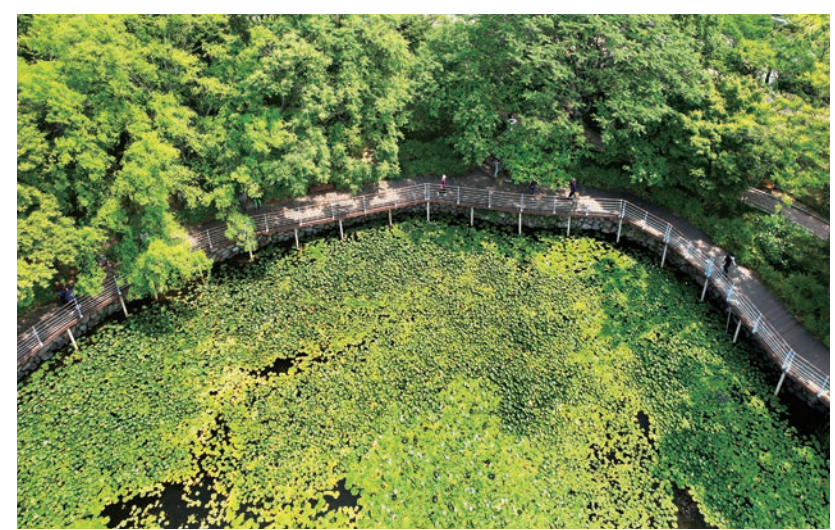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T 이야기



**대구수목원**

대구수목원은 지난 1990년까지 생활 쓰레기 410만 톤가량이 18m 높이로 쌓여 있던 '쓰레기 산'이었다. 이것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수목원으로 재생시켜 산림청 등록 공립수목원 1호 수목원이 됐다. 현재 생태학습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며 대구의 허파라 불린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42



**두류공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금봉산과 두류산에 조성된 공원이다. 4·19혁명의 시발점이 된 2·28학생의거기념탑을 비롯해 민족시인 이상화의 동상, 축구장, 야구장, 금봉산 산책로, 성당뫼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36





유치곤장군호국기념관

특징이다. 디아크 내부는 강 문화 전시실과 아트갤러리, 서클영상존, 전망대 등 '강과 사람의 공감'이라는 메시지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밝혀 낮과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디아크에서 강변 쪽으로 향하면 우리나라 16개 보 가운데 가장 긴 강정고령보(953.5m)가 있다. 자전거길 중추 인증센터가 길 입구에 있어 자전거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다. 보 중간에 친수 시설로 꾸민 낙락섬과 전망데크 탄주대가 있다.

**호국 안보를 기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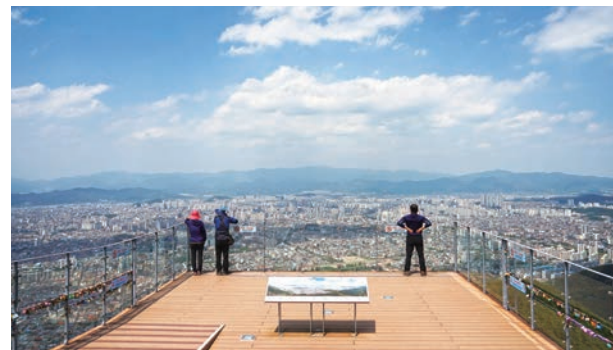
낙동강은 예부터 영남의 젖줄이었다. 더욱이 강 주변의 비옥한 농토는 고대국가들이 쟁탈전을 벌였던 격전지였다.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한국전쟁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다. 국군은 저항했지만, 무기력했다. 전쟁 발발 이후 석 달도 안 돼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 대구광역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여행하기에 적합한 곳이 여럿 있다. 그중 앞산에 자리한 낙동강승전기념관은 지난 1979년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호국·안보 교육장으로서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 기념관은 야외 전시관과 3개 층의 전시 공간으로 나뉜다. 1, 2층 전시관에는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과 개전 초기 상황, 국군의 방어선 구축 등 치열했던 당시 모습을 자료와 영상으로 소개된다. 눈에 띄는 것은 1950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낙동강 전투다. 낙동강이 격전지가 된 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마지막 보루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이 방어선을 뚫기 위해 병력 21,000여 명을 다부동 일대에 투입했다. 국군은 유엔군과 경찰, 주민까지 힘을 합쳤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8,200여 명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55일간 북한군과 맞서 싸워 방어선 사수에 성공했다. 기념관에는 당시 긴박했던 전투 상황을 디오라마로 재현해 놓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자락에 유치곤장군호국기념관이

있다. 달성군이 고향인 유치곤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1951년 강릉공군기지에서 처음 출격했다. 그 이후 평양 인근에 있는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며 우리 공군사에 남을 203회 출격 기록을 남겼다. 유치곤 장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1964년에 개봉한 영화 <빨간마후라>는 당시 최고의 전쟁영화로 인기를 얻었다. 기념관 야외에는 퇴역한 전투기들이 유치곤 장군 동상과 함께 전시돼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칠곡군에 이른다. 이곳은 낙동강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다. 이곳에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이 2015년 10월에 개관했다. 이곳에는 55일간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된 자료 전시와 전투체험관, 입체영상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출퇴근 시간 우리는 꽉 막힌 도로에서, 지옥철과 만원 버스에서 소리 없이 아우성치며 사투를 벌이듯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전쟁 같은 일상과 군인들의 싸움은 무엇이 다를까? 어쩌면 걸모습만 다를 뿐 그 속은 똑같은 아비규환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모든 건 강물처럼 순리대로 흐르기 마련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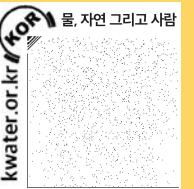


**앞산전망대**

대구광역시 남쪽에 우뚝 솟은 앞산(660m)은 산성산과 대덕산과 이웃해 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공원이 앞산공원이다.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수성구에 걸쳐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케이블카, 전망대, 낙동강승전기념관 등이 있다.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454

찾아가GO, 체험하GO  
자연 생태와 호국 안보 도시, 대구 여행 스포츠



**에코스텝 1**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디아크 주변 공원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다. SNS 대구 피크닉 핫플인 이곳은 나무 그늘에 인디언 텐트를 치고 낙동강을 조망하는 것만으로도 한나절이 즐겁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다가 곤한 낮잠에 빠지기도 한다.

**에코스텝 2**  
낙동강자전거길은 안동댐과 부산광역시 을숙도를 잇는 363km 구간이다. 전 구간을 완주하려면 4~5일이 소요된다. 그중 달성군에 있는 강정고령보~사문진교~달성보 구간은 총연장 14km, 50분 소요된다.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많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 제로웨이스트 상점 대구 <제로웨이스트샵 예쓰>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가 유행했었다. 새삼스럽게도 가끔 그 말이 옳다며 무릎을 치는 순간이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자리한 <제로웨이스트샵 예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실제로 동네 주민들 가운데 “여긴 별의별 게 다 있네”라며 구경 오는 분들이 제법 있다고 한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전희택 대표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 여기는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시종일관 전희택 대표의 얼굴은 밝았다. 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여겼다.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적은 것보다 무관심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밥 먹고살죠’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세대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미래세대는 쓰레기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게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가게에 손님 한 분이 오셔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보다 환경의 심각성을 느끼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는 게 목적이예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전희택 대표는 현장의 분위기도 전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보다 사실상 더 어려워요. 그때는 사람들이 환경 파괴가 코로나19나 기후변화를 불러왔다고 비로소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되자 그때 가졌던 경각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는 대구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환경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전희택 대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처럼 전희택 대표의 제로웨이스트 선택은 그의 인생을 뒤바꿔놓았다. 누구는 일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또 다른 이는 경쟁에서 이겨 위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희택 대표에게 일(제로웨이스트)은 소명처럼 느껴졌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로웨이스트 전도사를 자처한 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누구나 편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가게, 그러면서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제로웨이스트샵 예쓰>가 되길 전희택 대표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 제로웨이스트샵 예쓰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 6-11  
문의 0507-1429-0422



# 나의 제로웨이스트 지수가 궁금하다면?

## 제로웨이스트 빙고 게임

★ 내게 해당사항이 있는 칸을 지워 빙고를 완성해 보세요

평소에 텀블러나 머그잔을 이용한다.	시장 갈 때는 늘 장바구니를 챙긴다.	빈 용기를 가져가서 식품을 담아온 적이 있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최대한 적게 사용한다.	우리 집에는 물티슈가 없다.
설거지할 때 친환경 수세미를 사용한다.	투명 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고 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젓가락과 수저를 받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 비닐봉지 대신 용기를 사용한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물티슈 대신 걸레로 닦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먹을 만큼 요리한다.	PVC(폴리염화비닐) 랩이 환경에 이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식품을 포장한 PVC 랩이 깨끗하면 재사용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 상태를 확인하고 버릴지 결정한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다.	대형 마트나 창고형 마트를 다녀오면 플라스틱 배출이 증가하는 것을 느낀다.	냉장고에 든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일은 거의 없다.	빈 식용유 통은 스티커를 떼내고 세척해서 배출한다.	주방 행주는 일회용 행주 대신 다회용 면 행주를 사용한다.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고 있다.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방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흔히 제로웨이스트는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큰 실천이라고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실천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일,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일은 소소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지금 바로 나의 제로웨이스트 지수를 확인해 보자.

글. 이종철 도서 출처. <제로웨이스트 살림법>, 살림스케치(김향숙) 지음, 21세기북스

## 빙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 0줄 문외한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거의 모르는 문외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해요.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제로웨이스트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1줄 초심자

이제 막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알아가는 초심자입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즐거움을 발견한 만큼 열정이 대단해요.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경험으로 한 단계씩 제로웨이스트 지수를 높여보세요.

### 2~3줄 경험자

생활 속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조금씩 실천하는 경험자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경험한 만큼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가족과 지인에게 제로웨이스트 실천법을 전파해 보세요. 혼자보다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됩니다.

### 4~5줄 실천가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아주 잘 알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실천가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 실천 의지가 무너지지 않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만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노하우를 갖게 된 만큼 조금만 더 실천하면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

### 6줄 이상 고수

환경을 생각하는 제로웨이스트 고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꿈꾸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완벽한 살림꾼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가끔 "환경 운동가인가?"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 주세요. 짹짹!



얼마 전 '사건의 지평선'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윤하. 파워풀한 보컬과 감성적인 보컬의 장점을 두루 갖춘 그는 무대에서 빛나는 가수다. 작사와 작곡, 편곡, 프로듀싱 실력까지 겸비한 그는 요즘 '탄소중립 가수'로도 불리고 있다.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환경을 생각한 마음이 그의 앨범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글. 최행좌 사진 제공. C9엔터테인먼트

지구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윤하

66

환경문제를 어렵사리 외면하지 않고서야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해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특히 6집 앨범이 '끝'에 관한 주제이다 보니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카르마(Karma)는 외면할 수 없고, 한번에 해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습관을 들여야 하다 보니 들여다보는 내용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주제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어요.

99

### ‘비 언니’에서 ‘탄소중립 가수’로

발라드, 록, 재즈, R&B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 윤하. 가창력과 곡 소화력이 남달랐던 그는 2006년 국내 데뷔 후 ‘비밀번호 486’, ‘우산’, ‘기다리다’ 등 히트곡을 남겼다. 한때 그는 비를 테마로 한 노래가 많아 ‘비 언니’라고 불리기도 했다. ‘Rain & The Bar’와 ‘빗소리’, ‘소나기’, ‘비가 내리는 날에는’, ‘Rainy Night’, ‘먹구름’,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등이다. 특히 에픽하이와 함께 부른 ‘우산’은 너무 유명하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이 노래에서 가수 윤하는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다른 뮤지션의 콜라베이션 러브콜을 많이 받는 가수이기도 하다.

그랬던 그가 요즘은 ‘탄소중립 가수’로 불리고 있다. 6집과 6집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된 ‘6년 230일’이라는 곡 때문이다. 이 곡은 윤하가 작사한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작사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저의 6집 앨범 <END THEORY>는 ‘끝’에 대한 생각들을 풀어낸 앨범입니다. 곡마다 2가지의 끝에 대한 소재를 엮어 표현했는데요. 그중 ‘6년 230일’은 뉴스에서 발췌하게 됐어요. ‘기후위기 시계’의 남은 시간이 그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곡에서는 지구의 끝과 화자의 관계의 끝이 상징적으로 이어져요. 어쩌면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날보다 척박하게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니, 지금 이 순간 냉담함을 멈추고 사랑했으면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그의 노래에는 서사가 있다. 음을 음미하며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우주의 장면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가수 윤하 ‘자체가 장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다.

###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3월 22일, 가수 윤하는 ‘2023 세계 물의 날’ 홍보영상에도 참여했다. 이 영상은 가수 윤하가 지난 2021년 11월에 발표한 ‘물의 여행’을 배경음악으로 제작했다.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그가 작사한 이 곡 역시 6집 앨범에 수록된 곡 중 하나다. 몽환적인 피아노와 서정적인 일렉기타가 가미된 오케스트라 팝 장르로 생동감 있는 가수 윤하의 파워풀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곡이다.

“이 곡은 물처럼 유연하게, 겁 없이 용감하게, 한계 없이 나아가자는 포부를 물의 순환에 비유한 내용이에요. 처음 곡을 작사할 땐 이렇게 큰 행사에서 제 곡이 불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물의 여행’을 알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외에도 여러 곡의 자작곡을 발표한 그는 자기의 곡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다운 노래를 부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신이 쓴 가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무엇일까?

“6집에 수록된 ‘별의 조각’이라는 곡 중 한 소절인데요. ‘낮은 바람의 속삭임 / 초록빛 노랫소리와 / 너를 닮은 사람들과 / 이 별이 마음에 들어’ 이 구간이 제가 느끼는 지구를 잘 표현한 구절이라 좋아합니다.”

작사는 물론 작곡, 편곡 실력까지 갖춘 그는 2018년 발매한 싱글 <느린 우체통>을 통해서 직접 프로듀싱 한 앨범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니 5집 앨범 <UNSTABLE MINDSET>, 6집 앨범 <END THEORY>와 6집 리패키지 앨범 <END THEORY : Final Edition>을 프로듀싱 하며 물오른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는 가수 윤하가 아티스트로 넘어가는 변곡점이 됐다.

### 지구와 환경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파

가수 윤하는 ‘역주행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지가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서 윤하의 ‘그 거리..’를 불러 차트 역주행을 만들었고, 아이유는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윤하의 ‘기다리다’를 불러 음원차트에 재진입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사건의 지평선’도 역주행하면서 각종 음악차트를 석권했고, 제37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제32회 서울가요대상, 제20회 한국대중음악상 등을 휩쓸었다.

“곡이 역주행을 한다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꿈만 같아서 음원 차트를 자꾸 들어가 확인해 보기도 했죠. 볼 때마다 자부심이 들고 뿌듯했어요.”

6집 앨범으로 우주를 여행해 온 그는 지구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폭우, 폭설, 폭염 등과 같은 이상 기후를 넘어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 등 기후위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환경문제를 어렵사리 외면하지 않고서야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해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하니깐요. 특히 6집 앨범이 ‘끝’에 관한 주제이다 보니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카르마(Karma)는 외면할 수 없고, 한번에 해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습관을 들여야 하다 보니 들여다보는 내용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주제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싶어요.”

‘사건의 지평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음악적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 ‘1만 km 떨어진 바다’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글. 박상욱 JTBC 기자

‘올해 역대급 엘니뇨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과 이를 다룬 기사를 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들어봤지만 무슨 현상인지, 그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참 작은 존재였구나’라고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체감하진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축으로 도는 자전이기에 위도에 따라 그 속도는 달라지지만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자전 속도는 무려 1,670km/h에 달하죠. 이 회전으로 적도 부근에선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니다. 물론 이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설명입니다. 공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적도 부근에서 강하게 부는 이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을 따라 태평양 해수면의 바닷물도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바다의 경우 직접 햇볕을 맞는 해수면의 온도가 가장 따뜻하고, 심해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떨어집니다. 바다 위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은 결국 따뜻한 해수면의 물을 이동시키고, 그 결과 바다의 아래쪽에 있던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은 그 빈자리를 채우죠. 마치 욕조에 뜨거운 목욕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 근처에서 먼 방향으로 손을 휘저으며 물 온도를 신속히 고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욕조’는 곧 태평양을 의미하고요. 아래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이처럼 해수면을 향해 올라오는 것을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자연 현상이 그렇듯 사시사철 ‘자로 켜 듯 일정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무역풍도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강할 때도, 반대로 약할 때도 있죠. 무역풍이 강하면 용승 현상도 강해지고, 무역풍이 약할 때엔 용승 역시 약해집니다. 용승이 강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소보다 낮아집니다. 반대로 용승 현상이 줄어들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온은 평소보다 높아지고요.

이제야 왜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지 ‘작명 비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승은 우리의 어업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600년대, 페루의 어부들은 어느 때처럼 고기잡이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철, 용승이 활발하지 않아 바닷속 물의 순환 또한 활발하지 않았고, 그렇게 따뜻해진 바닷물로 어획량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어민들은 어업을 잠시 멈추고, 물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냈죠. 이 현상을 엘니뇨(El Niño, 남자 아기), 즉 ‘아기 예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반대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때는 라니냐(La Niña, 여자 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약 1만 km 떨어진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어떤 영향일까요? 여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더거나, 비를 퍼부을 때입니다. 겨울의 경우엔 포근하거나 눈·비를 퍼부을 때입니다. 기상 현상의 양극화, 기상이변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동안 라니냐로 평소보다 차가웠던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최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6~7월 사이, 이 수역의 해수온이 평년보다 0.5℃ 이상 오르며 엘니뇨가 시작되고, 오는 9~10월 중엔 1℃ 이상 높아지며 강한 엘니뇨, 이른바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여름, 엘니뇨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엘니뇨 영향을 살펴보고자 강수량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3년의 시간 동안 엘니뇨는 2002년과 2004년, 2009년, 2015년, 그리고 2019년 총 5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8월 전국 강수량은 2002년에 ‘금세기 최고’인 854.7mm를 기록했고, 2015년엔 294.9mm로 ‘금세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강수의 극과 극에 모두 엘니뇨가 함께 했던 겁니다.

**이는 기압의 미묘한 위치 차이 때문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할 때, 다시 말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따뜻해지면, 그로 인해 이 지역에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바로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 결과, 서태평양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한반도 아래의 서태평양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동남아 지역과 가깝게 위치**

**하면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를 막게 됩니다. 여름철 강수가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기압이 동남아와 조금 떨어져 형성되면 동남아 지역의 앞바다와 고기압의 틈새로 한반도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이른바 ‘대기의 강’이 한반도로 흘러오며 호우를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상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점차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상이변의 가능성은 더 커졌고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조건인 ‘지구의 자전’만으로도 인간의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빚어지는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뿜어져 나온 온실가스가 더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인간을 품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열의 89%는 바다가, 나머지 9%는 땅과 빙권이 흡수하고 있죠. 대기에 남는 열은 고작 2%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대기를 우리는 온실가스로 채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요? 그 임계점을 시험해 보려는 것일까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주 속 작디작은 파란 별에서, 그 별에서도 작디작은 존재가 거대한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결국 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는다면 점차 커지는 불확실성은 홍수로, 가뭄으로, 폭염으로, 때로는 이상 한파로, 그리고 점차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는 고대 마야 문명과 신비로운 대자연, 풍요로운 문화유적지로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하는 나라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멕시코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렇기에 멕시코로 떠나는 친환경 여행이 큰 의미가 있다.

글. 임산하 출처. 멕시코관광청

### 🍷 다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멕시코시티

‘고대 문명의 나라’라고 불리는 멕시코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마야, 아즈텍, 테오티우아칸 등 다양한 고대 문명이 발생한 나라다. 수많은 박물관과 유적지, 민속촌 등 볼거리가 넘쳐나고, 도시 곳곳에 그려져 있는 화려한 벽화는 감성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여행을 가능케 한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Mexico City)는 해발 2,240m에 위치한 고원도시다. 본래는 호수 속의 섬이었다. 16세기 멕시코를 점령한 스페인군이 호수를 메운 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지금의 도로가 만들어졌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 역사와 문화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시티의 중심부에는 ‘역사지구’가 자리하고 있는데, 아즈텍 문명의 흔적에서부터 스페인 정복 이전과 이후 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국립예술궁전’, 멕시코를 대표하는 미술작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리다 칼로 미술관’ 등 예술과 문화의 명소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 🌴 세계적인 휴양지, 칸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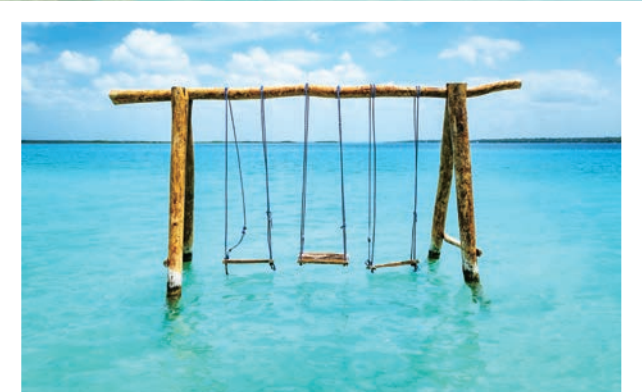
멕시코 하면 떠오려야 될 수 없는 도시가 칸쿤(Cancun)이다. ‘카리브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칸쿤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멕시코 동쪽에 위치해 카리브해와 맞닿아 있다. 해변을 따라 줄지어 선 초호화 호텔과 리조트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탁 트인 카리브해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시리도록 파란 바다와 부드러운 모래사장, 형형색색의 물고기 등 맑고 깨끗한 자연을 칸쿤 어디에서나 만끽할 수 있다.

이국적인 해변은 물론 핑크빛으로 물든 핑크 라군, 마야문명의 유적을 감상할 수 있는 치첸이트사, 수중에 수백 개의 조각품이 있는 칸쿤 수중박물관 등 둘러볼 곳이 무궁무진하다.

# 생동감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멕시코



멕시코시티 도시 전경



### 바칼라르

멕시코 키타나루(Quintana Roo) 주에 위치한 바칼라르(Bacalar)는 최근 tvN 예능프로그램 <서진이네>의 촬영지로 국내에 더 잘 알려졌다. 칸쿤에서 차로 4~5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거리와 다양한 기념품을 파는 재래시장,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적지 등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마을은 거대한 호수를 품고 있다. 바칼라르라는 마을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호수다. 에메랄드빛 호수는 수심에 따라 다양한 물색을 자랑하는 까닭에 '7가지 색상의 석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한 호수에 도착하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수영, 카약, 스노클링, 패들보드 등 취향에 맞는 액티비티를 체험하며 호수의 매력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 액티비티에 큰 관심이 없다면 드넓은 백사장에 누워 잠시 여유를 즐겨도 좋다. 따스한 햇볕을 느끼며 호수의 경치를 감상하기만 해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호수 주변에는 물 위의 그네, 나무 오두막 등 사진 찍기에 좋은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게 된다.



### 테오티우아칸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다. 해발 2,300m의 멕시코 고원에 위치한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이다. '신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유적지를 가로지르는 '죽은 자의 거리'에는 대표적인 피라미드 유적인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있다. 평평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 바라보는 풍광이 압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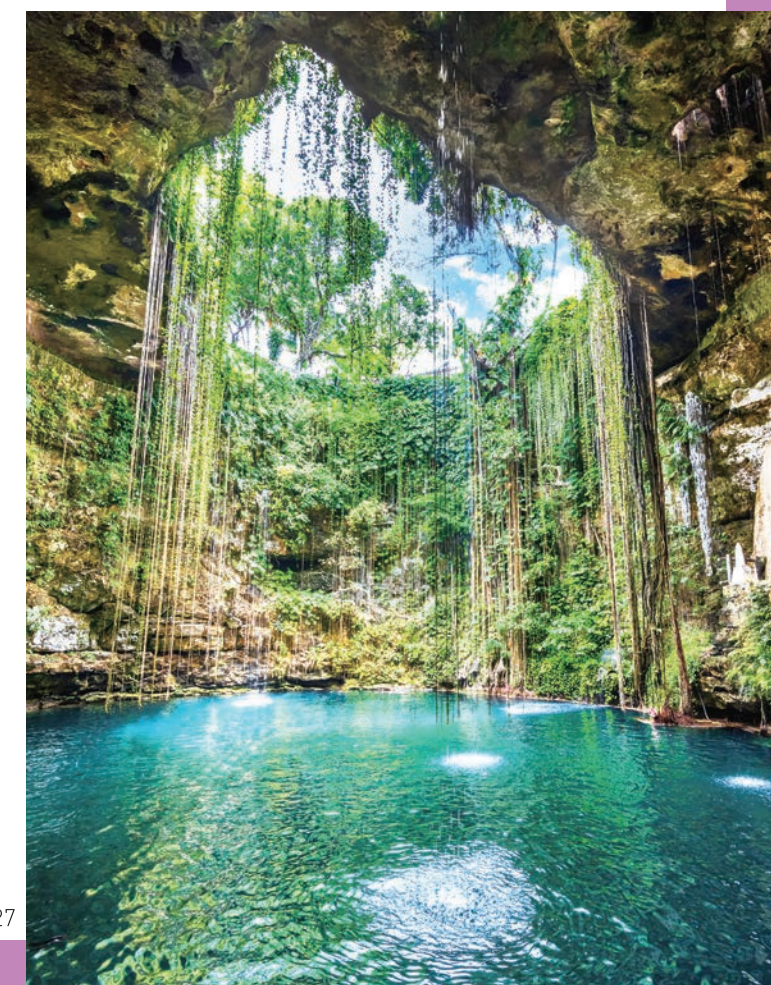
### 타코

타코(Taco)는 옥수수가 주식인 멕시코에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만든 토르티야에 고기와 채소, 치즈 등을 넣어 돌돌 말아서 먹는 음식이다. 멕시코식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적인 멕시코 요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가게를 찾을 수 있다.



### 세노테

멕시코를 여행하다 보면 싱크홀처럼 뽕 뚫린 천연 수영장을 볼 수 있다. '신성한 우물'이라는 뜻의 세노테(Cenote)인데, 유카탄 반도의 석회암층 지반이 약해져 무너지면서 동굴이 드러나 생긴 천연 우물이다. 환상적인 비경을 간직한 천연 수영장인 세노테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햇벌이 뽕 뚫린 세노테를 비춰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한다. 이곳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집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를 재활용할 수 없을까? 버리기에 아까운 상자들을 모아서 예쁜 수납함을 만들어보자. 아이들도 따라 할 만큼 만드는 과정이 쉽고, 재활용품을 사용해 친환경적이다. 게다가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지구에 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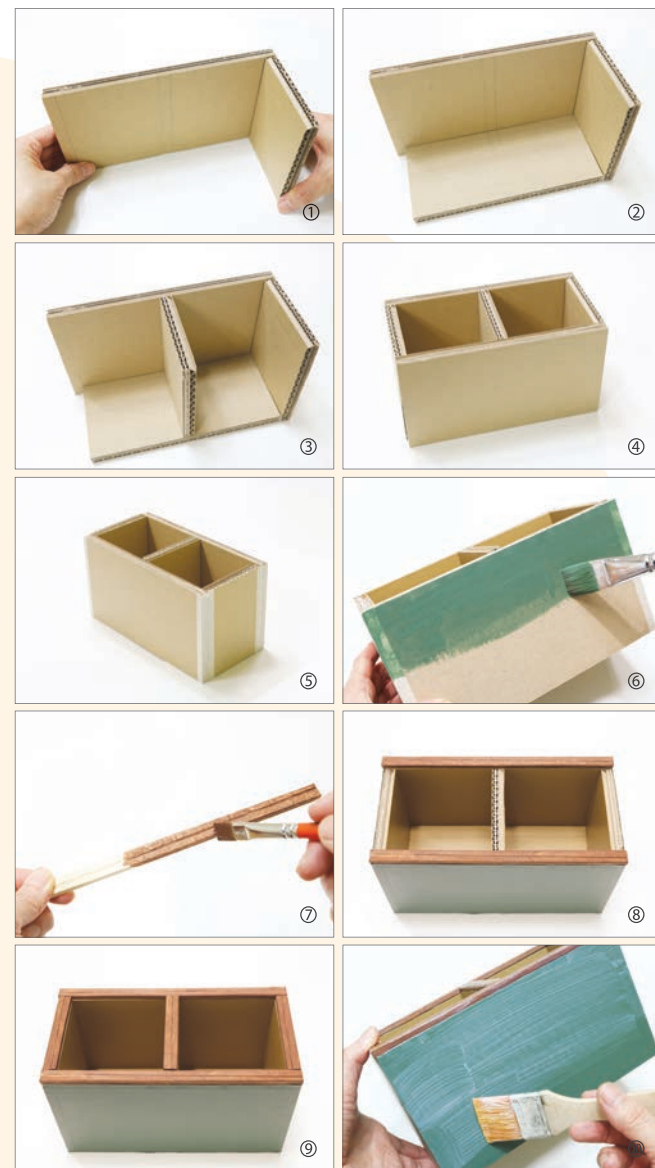
글. 이종철 도서 출처. <골판지와 나무젓가락으로 만드는 수납 소품 DIY>, 배민정 지음, 밥북

## 택배 상자와 나무젓가락으로 친환경 수납 소품 만들기



2칸 연필꽂이

준비물 : 골판지(바닥면 1장, 앞뒷면 2장, 옆면 2장, 가운데면 1장), 나무젓가락 4개, 붓, 아크릴물감, 글루건, 마스킹 테이프, 바니시



- ① 옆면과 뒷면을 맞추어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 ② ①에 바닥면을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 ③ ②에 가운데면을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 ④ ③에 옆면과 앞면을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 ⑤ 골판지 심이 보이는 옆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 ⑥ 연필꽂이의 바깥 면에 색을 칠한 후 마르면 한 번 더 색칠해 주세요.
- ⑦ 1쌍의 나무젓가락을 색칠해 주세요. 4개를 만들어주세요.
- ⑧ 연필꽂이의 앞뒷면에 나무젓가락을 붙여주세요.
- ⑨ 남은 나무젓가락 2개를 사용해 옆면,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 ⑩ 연필꽂이 바깥 면과 나무젓가락에 바니시를 칠한 후 말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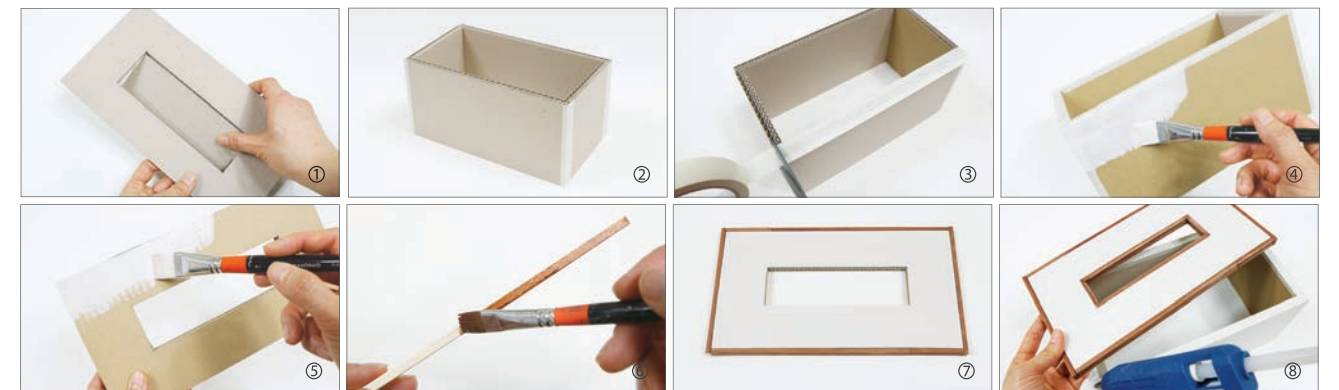
티슈케이스

### 예쁜 수납 소품을 만드는 즐거움

택배로 집에 쌓여 있는 골판지 상자와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필요한 수납 소품을 만들 수 있다. 완성품을 보면 '이게 정말 재활용품으로 만든 수납함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골판지와 나무젓가락으로 만드는 수납 소품 DIY>의 배민정 작가는 "재활용품을 소재로 친환경적인 연필꽂이, 수납 박스, 냄비받침, 보석함 등 유용한 수납 소품을 만들어보세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색칠하고 꾸미는 과정도 즐기면서 자기만의 소품을 만드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 ① 윗면 가운데에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 ② 앞뒷면과 옆면을 글루건으로 붙여 하단 틀을 만들어주세요.
- ③ 골판지 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 ④ 하단 틀의 바깥 면에 색칠해 주세요.
- ⑤ 상단 틀에 색칠해 주세요.
- ⑥ 나무젓가락을 색칠해 주세요. 6개를 만들어 주세요.
- ⑦ 상단 틀 테두리와 사각형 안에 나무젓가락을 붙여주세요.
- ⑧ 글루건을 이용해 상단 틀과 하단 틀을 붙이고, 바니시를 칠해 완성해 주세요.

준비물 : 골판지(앞뒷면 2장, 옆면 2장, 윗면 1장), 나무젓가락 6개, 붓, 아크릴물감, 글루건, 마스킹 테이프, 바니시, 목공본드



# 소중한 치아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를 숫자로 바꾼 날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건강할 때 구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글. 이종철

###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치아'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라는 말이 있듯이 치아는 건강할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치아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아는 우리 몸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쪼개고 으개는 씹는 기능을 한다. 또 말을 할 때 발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치아가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소화 불량으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아가 손상된 상태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충치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또 치아 배열이 틀어지거나 잇몸뼈가 녹아내리고 심하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입속 건강을 해치는 구강질환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은 입속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구강질환이다.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둘러싼 잇몸 등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잇몸에만 염증이 있으면 치은염으로,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뼈인 치조골의 파괴까지 일어나면 치주염으로 나뉜다. 초기에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들뜬 느낌이 날 수 있다. 이때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증상이 진행되면 치조골이 손상되며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거나 곪는 증상이 나타난다.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며 치조골이 손상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우식증은 흔히 충치라고 부른다.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mutans)균은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나 당분을 식량으로 삼으며

산을 생성한다. 이 산의 작용으로 치아가 부식되며 충치가 발생한다. 치아우식증의 주요 증상은 치아 통증이다. 법랑질에 한정된 경우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식증이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 부위까지 진행되면 찬 것에 시리고, 단맛에 예민해진다.

### 건강하게 구강 관리하는 방법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외과적인 치료를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 구강 관리의 첫걸음은 이 닦기다. 이 닦기는 아침·점심·저녁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하면 좋다. 이때 치아 안쪽과 바깥 면은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이 닦아주도록 한다. 앞니는 위아래로 굽듯이 닦고, 어금니 안쪽은 입을 약간 오므리고 닦아준다. 어금니의 씹는 면은 칫솔이 원을 그리면서 문지른다. 이 닦기의 핵심은 치면세균막(치태)을 제거하는 데 있다. 치면세균막은 치면에 형성돼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중요한 건 칫솔질하는 부분 중에서 잘 안 되는 부위를 알고 세심하게 닦는 방법이다.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은 이 닦기 전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치실 사용법은 30~40cm 정도로 끊은 뒤 양손 중지에 감은 뒤 치아 사이에 끼워 넣고, 치실을 감은 손을 천천히 앞으로 움직여 닦도록 한다. 과도하게 힘을 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검진과 함께 받는 스케일링도 좋은 구강 관리 활동 중 하나다.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것은 치아 관리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 관리에도 좋다.





# 소통과 봉사가 함께한 뜻깊은 시간, 달달한 커피로 행복한 하루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강원지역협력단이 총출동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하우스 안에서 멜론 재배 농가의 일손을 돕는 직원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찾으러 열한 번째 '수(水)타벅스가 간다'가 강원도 춘천시로 달려갔다.

글. 최행자 사진. 김범기 영상. 이덕재





###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강원지역협력단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직원들은 멜론 재배 농가에서 줄기 묶는 사전 작업 등을 하며 농촌 일손을 도왔다. 끝없이 긴 하우스 안에서 직원들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봉사활동에 진심이였다. 강원지역협력단 하선혜 대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 이벤트를 신청했다고 한다.

“강원지역협력단은 9개 지자체에 사업소가 있어 부서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 아쉬움이 있었어요. 날이 따스해지는 요즘, 부서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소통과 봉사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커피차가 함께한다면 강원지역협력단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신청하게 됐어요.”

### 강원도 우수율을 책임지는 강원지역협력단

강원지역협력단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거버넌스 역할과 함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SWM(Smart Water Management, 이하 SWM)사업 등 국민에게 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베테랑들이 모여 있는 부서다.

강원도 9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 우수율 85% 달성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있다.

이덕진 차장은 “올해는 7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보증이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과보증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관하에 1년 동안 우수율 85% 이상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영서지역은 인제군, 철원군, 원주시 3개 사업장이, 영동지역은 양양군,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4개 사업이 해당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SWM사업도 7개 사업소에서 준공 예정이다. SWM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강원지역협력단은 7개의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자체에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협력과 소통으로 다져진 팀워크로 막중한 업무를 해내고 있다. 이러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강원지역협력단에 값진 소식도 생겼다. 바로 삼척시에 제2의 사업장이 생긴 것이다.

황재경 팀장은 “2019년에 시작한 삼척시 현대화사업에 이어 지난해에는 삼척시 노후상수관 관로정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 5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도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커피차와 함께한 소풍 같았던 하루

무릇 농사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새참’이다. 오늘은 새참을

대신할 수(水)타벅스 커피차가 등장했다. 힘든 봉사활동을 마친 직원들을 위해 시원한 커피와 에이드, 차 등을 준비했다. 파란색 ‘물사랑봉사단’의 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텀블러를 손에 들고 줄을 서서 ‘무엇을 마실까?’ 메뉴를 골랐다. 이날은 ‘모히또에이드’가 인기 메뉴였다.

장정숙 과장은 “모히또에이드를 처음 마셔봤는데요. 청량한 맛이 갈증을 해소해 주고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김선재 대리는 “직원들과 함께 커피차를 배경으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 소풍 나온 기분이예요”라며 엄지를 세웠다.

박진하 주임은 “커피차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마시니 더 꿀맛이예요”, 김성준 대리는 “평소에 자주 만나기 힘든 직원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강범석 차장은 “사무실이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마시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라며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최미진 차장은 “농촌 일손이 지금 부족한데 짧은 시간이지만 봉사활동을 한 뜻깊은 하루였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마침 당이 떨어졌는데 직접 커피차가 와서 음료를 나눠주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라며 손하트를 보냈다.

황선민 강원지역협력단장은 “강원지역협력단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양양군, 동해시, 삼척시, 인제군, 원주시, 철원군 등 9개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직원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걸음에 달려왔는데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그동안 직원들이 쌓아온 단합된 모습이 빛을 발한 뜻깊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호반의 도시’답게 시원한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 message.

봉사활동을 위해  
또인 직원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 하선혜 대리 한강유역본부 강원지역협력단

강원지역협력단은 업무 특성상 사업소들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번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은 각 센터 및 사업소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부서원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번 봉사활동에 ‘수(水)타벅스’ 커피차가 함께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신청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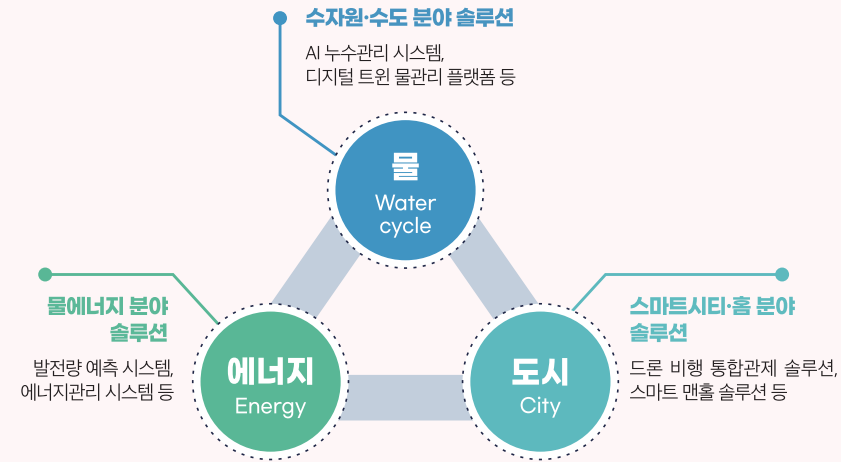
전 세계 다양한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디지털워터플랫폼이 있다. K-water가 운영하고 있는 '워터라운드(waterRound, 이하 워터라운드)'가 그 주인공이다. 물분야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서비스하고,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유통과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물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 전 세계 디지털 물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워터플랫폼 워터라운드



## 워터라운드에 탑재된 솔루션



워터라운드는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물산업 역량과 접목시킨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워터플랫폼이다. 현재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물관리 플랫폼 등 35종의 물 관련 디지털 솔루션이 있으며, K-water는 물론 공공기관, 기업 등에 서비스해 현업 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워터라운드의 주요 기능

K-water는 지난해 3월 22일, 첨단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를 글로벌 론칭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워터라운드는 디지털워터솔루션의 기획부터 개발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및 공통기능, 데이터·물기술 검색, 오픈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다.



## 워터라운드 참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

참여기업 매출(2022년 기준) **16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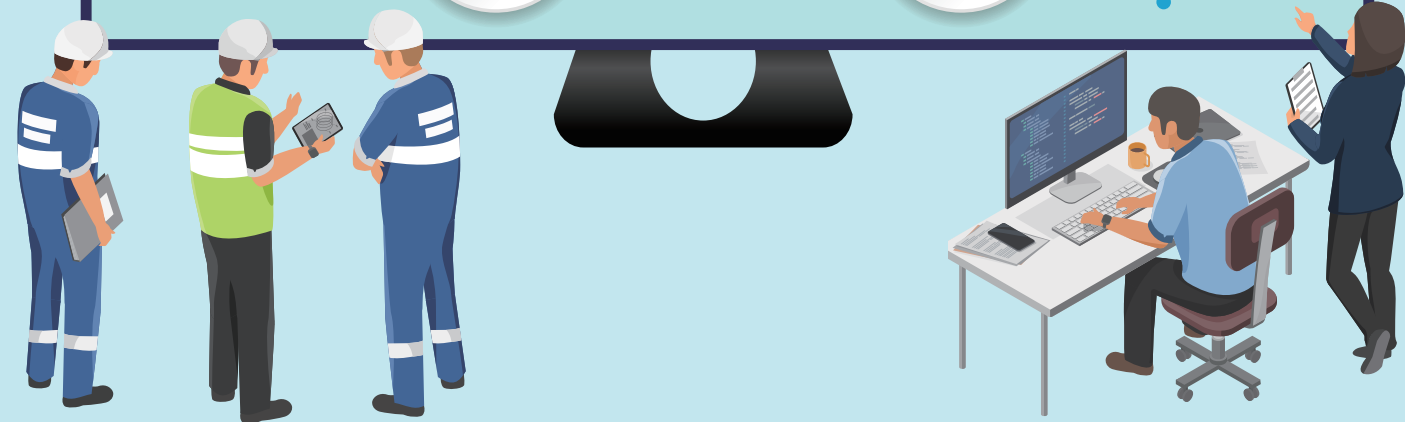
CES 2023 혁신상 수상 **10**건

글로벌 계약(2022년 기준) **36**억원

K-water는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참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로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다. 론칭 이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현업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고, 지난해 참여기업 매출은 약 167억 원을 달성했다. 참여기업과 물 관련 국내외 글로벌 박람회 등에 참가했으며, 특히 'CES 2023'에 공동으로 참여해 9개 참여기업이 10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K-water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글로벌 계약 36억 원을 달성했다.

### 워터라운드(wateRound)

K-water는 물 관련 기업의 디지털워터솔루션 기획부터 개발·유통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며 참여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다.



# W A T E R R O U N D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물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K-water는 워터라운드(wateRound, 이하 워터라운드)를 통해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방하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앞당기고,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디지털워터플랫폼 워터라운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다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된 요즘이다. 챗GPT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초거대 인공지능(AI)

은 디지털 기반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물산업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산업은 특히 등록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 물산업을 혁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 물기술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에 K-water는 물종합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론칭한 ‘Digital GARAM+(디지털가람플러스)’도 그 일환 중 하나다. 디지털가람플러스는 모니터링, 홍수, 가뭄, 물순환, 수질, 댐 안전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이다. 또 정수장·관로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스마트 센싱 기술 및 AI 기반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SWM)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정수장, 스마트 관망 관리 등



1. 베트남 수출상담 및 기업 간담회

디지털·스마트화를 추진하며 미래형 수도 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K-water는 스타트업과 사내벤처를 발굴·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174개 혁신 스타트업과 협업을 이뤘으며, 창업지원사업 자금지원 연계와 물산업 특화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다

K-water는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워터라운드는 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 여러 참여자들이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한 혁신 솔루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워터플랫폼이다. 최근 스마트 혁신기술과 디지털·하이테크 물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글로벌 물문제를 해결하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플랫폼이그라운드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워터라운드가 주목받는 이유다.

이에 K-water는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 22일 '제9차 세계 물포럼'에서 워터라운드를 론칭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

워터라운드의 주요 기능으로는 △물 관련 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마켓플레



3. 디지털워터플랫폼 론칭 행사  
4. 참여기업 발굴 및 비즈니스 미팅

66

K-water는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9

## 2. CES 2023 K-water 전시관



이스 △솔루션 개발·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물 관련 기술 및 학술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 △물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실행까지 체험이 가능한 오픈 커뮤니티 등이 있다. 현재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물관리 플랫폼을 포함해 35종의 물 관련 디지털 솔루션이 있으며, K-water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등에 서비스해 현업 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워터라운드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다

K-water는 워터라운드로 글로벌 디지털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외의 유망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클라우드·물기업과 협력을 통해 워터라운드를 글로벌 물종합 플랫폼으로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생태계로 확산해 국내

물산업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솔루션 기획부터 거래·서비스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실증랩도 구축해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운영 및 솔루션 개발을 주도할 디지털 융복합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물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도 수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워터솔루션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해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로 국가 신성장동력에 기여할 계획이다. 물관리 솔루션을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로 물 분야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K-water는 이러한 디지털 물기술 확보와 물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워터플랫폼인 워터라운드를 운영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글로벌 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차상훈 워터라운드 대표

(주)워터라운드는 K-water 사내벤처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혁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중이며,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터라운드 플랫폼을 통해 당사 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고, 구축된 디지털 물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다양한 수요자와의 매칭 가능성을 통해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워터라운드를 통해 물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 디지털 혁신 기술로 글로벌 물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들의 힐링 아이템 옥외글판으로 ESG 경영을 실현하다



1. K-water 본사 사옥  
2. K-water 낙동강유역본부 사옥

## K-water 옥외글판, 국민과 공감대를 이룬다

도심 곳곳에 대형 옥외글판이 등장하고 있다. 짧은 문구와 친근한 디자인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옥외글판은 K-water 본사에도 게시돼 있다. K-water 옥외글판은 감성적인 문구와 그림으로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계절마다 새롭게 단장하는 감성형 옥외글판은 30자 내외의 짧은 문구이지만,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힐링 받을 수 있도록 그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거듭하며 변화해왔다.

특히 K-water는 지난해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글판'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해 국민 중심의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시민들의 힐링 창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로 1주년이 된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글판'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참신하고 감동적인 문구들로 채워졌다. 이전보다 다양한 문구에 시민 정서가 더해졌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시민이 직접 창작한 문구 3건이 옥외글판으로 게시됐다. 올해부터는 낙동강유역본부 및 부산권지사에도 옥외글판이 생겼다. 앞으로도 유역본부 등에 감성형 옥외글판을 확대 게시해 국민들에게 웃음과 위안을 줄 수 있는 K-water 힐링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K-water 본사 앞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바로 K-water 상생관에 게시된 대형 옥외글판이다. K-water는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글판'으로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ESG 경영을 실현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 공명에 지역주민

**'눈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리고 희망은 가장 깊은 곳에서 솟는다.'**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에 글판이 걸려있어서 거의 매일 옥외글판을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면 이번엔 어떤 글귀와 그림이 올라올까 하고 아침마다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붐비지 않는 시간엔 잠깐 바람을 쐬 겸 가게 앞을 나가곤 하는데 옥외글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바쁜 하루에 위로를 받기도, 또 어떤 날은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해요. 가게에 오시는 손님이나 주변 상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글판이 너무 예쁘고, 덕분에 주변이 밝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K-water에서 더 관심을 갖고 좋은 글판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지영 초등학교 교사

**'어떤 모습도 소중한 년 존재함으로써 내게 커다란 기쁨이다.'**



K-water 옥외글판은 출퇴근길에 운전하면서 항상 보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을,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갖고 있던 동심을 자극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동을 빛내 주는 랜드마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 관련 전문기관인 K-water에서 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이템을 꾸준히 운영한다는 것이 요즘 시대에 중요한 ESG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주더라고요. 시민 모두가 참여가능한 만큼 다음 공모 때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많이 참가해서 최종 게시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도 옥외글판이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와동의 랜드마크로 오래오래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초등학생이 바라본 옥외글판은?

옥외글판은 크기가 엄청 커서 등·하교할 때마다 눈이 가요! 특히 배경그림이 동화책 그림 같아서 볼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눈 그림이 있고, 따뜻한 봄에는 꽃 그림이 있어서 그림이 바뀌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기도 해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열심히 볼 거니까 예쁜 글과 그림이 자주 걸렸으면 좋겠어요!



## 이영옥 시민 문인

**'마음이 열리니 하늘이 보이더라. 꽃도 바람도 친구가 되더라.'**



저는 올해 초 옥외글판 문구선정위원회의 시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K-water 옥외글판은 짧은 문구이지만 계절을 이야기하고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문화·정서적으로 큰 영향력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옥외글판 심사에 시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고, 한 줄의 따뜻한 글귀가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가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K-water 옥외글판이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바랍니다.

## 김용규 K-water 법무실 부장

**'새방이 흔들려도 물은 희망을 안고 흐른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은 가슴에 와닿는 하나의 문장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K-water 옥외글판은 바로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옥외글판에 애정을 갖고 공모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데, 삶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글을 스스로에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문구를 창작해 제출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해복구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문구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너와 내 이마에 핀 소금 꽃이 세상에 행복을 수놓다'를 제출했는데 운 좋게 최종 문구로 선정됐습니다. 옥외글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나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선한 땀방울을 흘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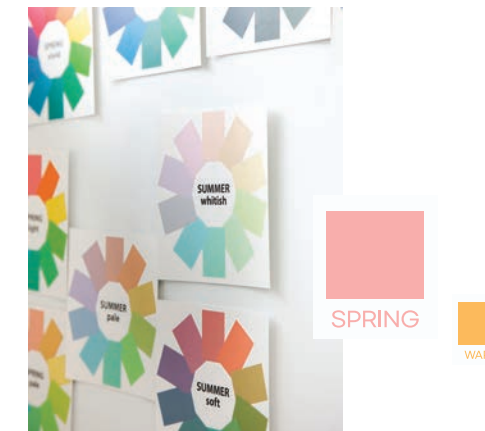
내 입술은 하나인데 립스틱색은 셀 수 없이 많다. 나에게 잘 맞는 색을 알지 못해 고군분투했던 화장품 유목민은 가라! 나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 20사번 다섯 명이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함께해 웃음 마를 일 없었던 신나는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글. 권다인 사진. 한유리



## 알록달록 세상에서 나의 색을 찾아보자

동기들이 함께한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 퍼스널 컬러 진단을 위해 모인 20사번 동기들

퍼스널 컬러 진단을 위해 모인 다섯 명의 직원들은 김천과 구미 지역의 20사번 동기 사이이다. “한 번 만나자”라는 말을 여러 번 주고 받았음에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탓에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다는 어색함도 잠시, 금방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어김없는 동기 사랑을 보여주었다.

오늘 체험 신청을 주도한 건 구미권지사 박지현 대리다. “지난 해 다른 프로그램에 선정된 경험이 있어서요. 제가 직접 신청하면 선정이 안 될까 봐 남예지 대리에게 신청하자고 했어요”라며 웃은 그는 “미대생인 여동생이 진단해 준 ‘여름 쿨톤’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라는 신청 계기를 전했다. 오늘 체험의 청일점 이지훈 대리는 이런 자리가 어색한 듯하면서도 “TV로만 보던 퍼스널 컬러 진단을 실제로 할 수 있어 설레요”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이론 교육이 있었다. 이미지 컨설팅의 일종으로 여겨지는 퍼스널 컬러는 나에게 잘 맞는 컬러를 찾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크게 봄 톤, 여름 톤, 가을 톤, 겨울 톤이라는 네 가지 톤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라이트, 비비드, 페일 등으로 세분화된다. 나이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피부 상황에 따라 매일 바뀌기도 하는 만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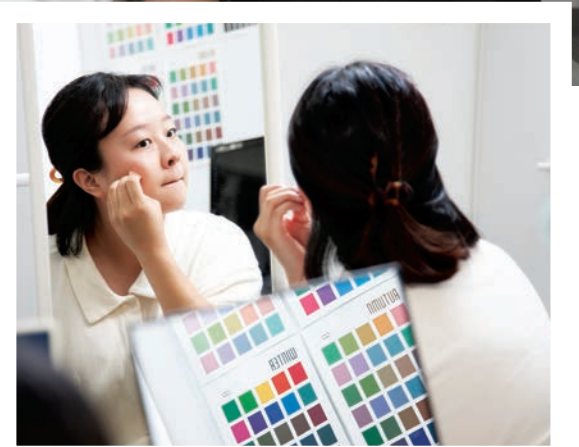
### 나의 피부는 어느 계절에 있을까?

이론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1대 1 퍼스널 컬러 진단 시간이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체험자들은 화장을 지웠다. 구미권지사 박정은 대리는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인 건 처음인데 만나자마자 서로의 생얼을 보게 됐어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퍼스널 컬러 측정은

기계를 이용했다. 기계를 피부에 가져다 대면 피부가 가진 컬러가 수치로 표현되는 방식인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색감이라는 개념에 객관성을 더한 것이다. 기계를 통해 퍼스널 컬러가 결정되면 컬러 차트와 천 등을 통해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 주자로 이지훈 대리가 나섰다. 걸으며 보기에 꽤 어두운 피부를 가진 그는 '겨울 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오늘 입고 온 하늘색 셔츠가 그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평가에 동기들이 동의하자 그는 아쉬운 웃음을 지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파란색, 흰색 등 밝은 옷을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야겠네요." 남예지, 박정은, 박지현 대리는 모두 '여름 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세분화를 위해 여름 쿨톤의 컬러 천이 얼굴 아래서 훑혀 넘어갈 때마다 "어울린다", "이건 별로다" 등 동기들의 솔직한 평가가 따라붙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전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 덕이었다. 김예슬 대리는 동기들의 반응이 진단에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어떤 색의 천을 가져다 대도 긴가민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기들의 의견이 한곳으로 모이는 걸 보고 신뢰가 확 생겼어요. 모두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색을 찾아가다**

이날의 결과에 가장 아쉬워한 건 남예지 대리였다. 그는 얼마 전 염색한 밝은 갈색 머리를 펑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다. "2주 전에 뿌리 염색도 했거든요. 제게 안 어울리는 색이라고 하니 좀 아쉬웠어요. 제가 첫인상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도 이런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이 있구나 싶어 놀라웠고요. 하지만 저는 제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요. 한동안 유지할 것 같아요." 남예지 대리의 말처럼 퍼스널 컬러 진단에는 서로의 첫인상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조언도 가미됐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타인이 받는 인상이나 헤어스타일, 옷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묶는 게 좋은지, 앞머리를 올리는 게 나은지, 어떤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되는지 등 꼼꼼하고 구체적인 컨설팅에 박정은 대리는 "저는 파마를 하면 잘 어울릴 거라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내일 미용실에 좀 가보려고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이 나에게 잘 맞는지 조언을 들어보았다. 직원들이 한 아름 챙겨온 화장품들이 책상 가득 놓이고, 선생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각자에게 잘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골라 나갔다. 의외로 나의 퍼스널 컬러에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박정은 대리는 "내일 미용실에 갔다가 립스틱도 사러 가야겠어요"라며 웃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화장품을 추천하고 건네며 이날의 체험을 마무리했다. 여러 매체로만 접하던 퍼스널 컬러 진단을 경험한 직원들은 입을 모아 "마음속에 있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 거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박지현 대리는 마스크를 벗는 시기에 꼭 필요한 체험이었다고 평했다.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화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언을 들은 것 같아요." 이지훈 대리 또한 오늘 체험의 유익함은 물론 동기들과 함께해서 즐거운 마음을 전했다. "TV로 보서는 '잘 모르겠는데?' 싶던 것이 직접 와서 체험해 보니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동기들과 함께하니 더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저녁을 함께 하며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나에게 잘 맞는 색을 찾아가는 과정에 마음이 잘 맞는 동기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 팀장은 송 주임에 대해 업무적으로 소통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몇 걸음만 걸어와서 직접 보고하면 될 것을 꼭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는 점이다. 자신이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박 팀장은 어떻게 하면 송 주임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지낼 수 있을까?

글. 최정우 심리상담사

## 비대면을 선호하는 직원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



66

'송 주임은 이걸 또 사내 메신저로 보고했네?'  
'내가 자리에 없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리 메신저나 이메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99

직장 내에는 박 팀장처럼 직접 얼굴을 보고 보고를 받는 걸 선호하는 상사도 있다. 보고를 더 잘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바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점심 메뉴 선정에서도 팀원들끼리 메신저로 먼저 얘기를 나누어 어느 정도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앞으로 웬만한 의사소통은 대면으로 하지니 요즘 분위기를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걱정이다. 요즘 주니어급 사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메신저,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 번째, 비대면 방식은 편안한 소통 방식 중 하나다.** 주니어 사원의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내 메신저의 활용도가 높다. 이들은 비대면 방식에서 이뤄지는 소통과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에 대면 방식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니어 사원들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시니어 상사와 소통할 때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두 번째, 효율성의 추구다.** 비대면 방식을 사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으며 문서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사와의 대화가 길어질 것 같을 때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대화를 짧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은 이들이 포기하기 힘든 가치 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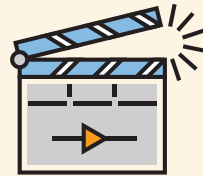
**세 번째,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이다.**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서 비대면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 연구원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니어 사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할 때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비대면을 선호하는 직원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 방식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다. 팀원들에 대한 마음과 업무 방식에 대한 존중 없이 팀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다. 비대면과 대면의 업무 방식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간단하고 일상적인 보고는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로 진행하되, 주간·월간 단위의 업무는 대면 방식으로 미팅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한 팀 단위 티타임을 활용해 대면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친근함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균형을 맞추어 시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법이다. 비대면을 원하는 마음을 이해하되, 필요한 경우 과감히 대면을 요청하는 팀장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연산, 베이킹소다 등을 활용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 Q. 친환경 청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구연산 가루로 섬유유연제를 만들어보세요. 구연산과 물을 1대 10 비율로 넣고 천연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넣어주면 됩니다. 침구를 깨끗하게 빨래하려면 과탄산소다를 넣어주면 됩니다. 표백과 살균 효과가 있어 깨끗하게 빨래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둔 구연산 섬유유연제도 함께 넣어주세요.

매트리스를 청소할 때 베이킹소다를 뿌려 2시간 정도 방치한 후 청소기로 제거해 주면 깨끗해집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 제거와 먼지·습기를 흡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에센셜 오일을 넣은 소독용 에탄올을 뿌려 한 번 더 소독해 주세요.

잘 말려둔 커피 찌꺼기로 천연 탈취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에센셜 오일을 함께 넣어 섞어준 다음 빈 용기에 담아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한지로 덮어 고무줄로 고정해 주면 완성입니다.

쌀뜨물에 소독용 에탄올과 쌀뜨물을 1대 1로 섞어 창틀 청소 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틀에 세제를 충분히 뿌린 후 낫은 칫솔로 꼼꼼하게 문지른 다음 낫은 행주로 닦아주면 깨끗해집니다. 낫은 수면양말은 방충망을 청소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물에 적신 수면양말은 손에 끼워 방충망을 닦아주세요. 더러워진 수면양말은 과탄산소다를 넣고 하루 정도 담가두면 깨끗해집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친환경 청소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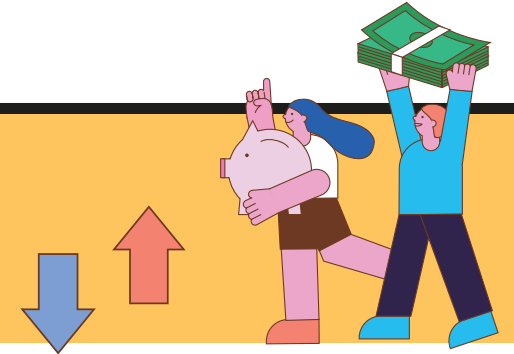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20명  
접수 마감일 6월 25일  
선물 발송일 7월 15일경  
※ 7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치솟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짠테크'(‘짜다’와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짠테크'의 일종으로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다. 현대판 '자린고비'로 불리며 MZ세대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글. 이종철

## 신자린고비 짠테크 거지방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짠테크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루 동안 단 10원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부터 온라인 상에서 펀드를 긁어모으는 '디지털 폐지 줍기', 절약 습관을 타인과 공유하자는 오픈채팅방인 '거지방'까지 등장했다. 몇 년 전 '올로', '파이어족' 등과는 다른 소비 습관으로 대조적인 상황이다. 최근 물가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사소한 소비를 줄이자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거지방'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출 내역이나 절약 습관을 공유하는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이다. 취지는 '절약'이지만 다소 과격하게 '거지방'이라고 부른다. 무절제한 소비로 거지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 모인 방 또는 소비 여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돈을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기 때문이다.

'거지방'에 모인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소비 내역이나 소비 충동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의 절제를 돕는다. 예를 들면, 참여자들은 닉네임에 월간 누적 지출금액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하루 지출 내역을 날날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무지출 챌린지'의 일환이다.

'거지방'은 단순히 지출 내역만 공유하는 게 아니다. 돈을 아끼면 격려해 주고, 이미 소비한 항목에 대해서는 질책하기도 한다. 또 돈을 절약하는 방법도 공유한다. 당근과 채찍이 오가는 게 '거지방'만의 매력 포인트다.

참여자들은 혼자서는 절약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함께', '동기부여'라는 의미에 바탕을 두고, 돈을 절약하기에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이유가 아닐까 싶다.

### '티끌 모아 태산' 일상 속 절약팁

- 1. 디지털 폐지 줍기**  
모바일 앱으로 광고를 시청하거나 퀴즈 참여, 회원 가입 등으로 포인트 또는 쿠폰을 모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테크로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라고도 한다.
- 2.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만으로 음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냉장고 속에 묵혀둔 재료를 가지고 세끼를 해결하면서 장을 보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음식을 쓰러기도 줄일 수 있다.
- 3. 알뜰 교통카드 사용하기**  
이 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포함하면 대중교통비를 매월 최대 30%까지 아낄 수 있다.



# 철저한 준비로 홍수기를 대비하다

2023년 K-water 홍수기 대비 모의훈련(2차) 실시



K-water가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상황을 고려한 대비 훈련으로 유관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참여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 홍수기 대비 대응체계 사전 점검

지난 5월 11일, K-water는 '2023년 K-water 홍수기 대비 모의훈련(2차)'을 시행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홍수기 대비 대응체계 사전 점검으로 본사·유역·지사 등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25 ~ 26일)에는 42개 부서(대상시설·댐·보·하굿둑·아라뱃길·시화조력)가 참여해 현장 홍수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전사 차원의 1차 훈련이 시행됐다.

이번 2차 훈련은 유역별 홍수대응 주요 댐 중심 실제 역할 훈련으로, 수자원운영처, 수자원시설처, 한강·금강·영섬·낙동강 유역관리처, 댐 지사 등 18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홍수 분석 및 홍수 조절 의사결정, 승인·보고·통보 등 수문방류 관련 절차 이행, 댐 홍수조절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

훈련 결과 댐·하류 하천의 극한 강우에 대한 최적의 홍수 분석과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며, 훈련에 참여한 12개 모든 댐에서 수문방류 예고보고 및 통보 등 수문방류 절차가 적기에 시행됐다. 특히 수문방류 시 실제 통보 대상인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보해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정경윤 댐 홍수조절위원회 위원장은 "홍수대응 업무는 K-water의 기본 업무로, 홍수기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댐·하류 하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 운영이 필요하며, 댐 운영 전반에 걸친 교육·워크숍 등을 추진해 전 직원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의훈련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

'2023년 K-water 홍수기 대비 모의훈련(2차)'은 태풍 내습으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 기상 상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실제 상황을 3배 압축해 진행(훈련시간 1분=실제시간 3분)하되, 수문방류 예고제 및 수문방류 요청·승인·통보 등 홍수조절 대응 과정 또한 동일하게 압축적으로 시행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절차 이행을 훈련했다. 훈련은 먼저 기상청 예비특보에 따라 수자원운영처에서 기상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역본부별로 수행한 홍수분석 결과를 댐 홍수조절위원회에서 발표·논의했다. 특히 댐 홍수조절위원회에서는 올해 시범 적용 예정인 Digital Twin(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사전 모의를 통해 현실세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을 활용해 댐 하류하천을 고려한 최적의 홍수조절 의사결정 과정을 시연하는 등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 등을 점검했다. 이어 댐 수문방류를 예보하고, 방류에 따른 홍수위험정보를 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진행됐으며, 돌발상황 발생 시 수문방류량을 변경하는 상황 대응 훈련도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수문방류 종료로 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주민에게 안내하고, 방류 종료 후 시설물 점검을 끝으로 모의훈련을 마무리했다. 한편 K-water는 이번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홍수기 전까지 순회교육 등 유역별 역량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솔직한 매력과 개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대세다. 회사 내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임플로이언서'다. K-water는 국민과 새로운 소통 활성화를 위해 임플로이언서 같은 직원들을 올해 처음으로 선발했다. 주인공은 바로 '수플'이다.

글: 최행좌 사진: K-water



# FOCUS 2

## K-water 홍보대사 '수플' 첫걸음을 내딛다

수플 1기 출범 및 킷오프 회의 개최

### K-water 직원 홍보대사 '수플'

직원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신조어로 '임플로이언서'가 있다. 직원(employe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딩에 기여하는 직원을 뜻한다. 전국 각지에서 현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직접 홍보 아이템을 고민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water 홍보대사 '수플'도 '임플로이언서' 같은 역할을 한다. 수플은 K-water를 대표하는 직원 인플루언서라는 뜻으로, 올해 처음으로 출범했다. 직원들의 시각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지난 5월에 '수플' 1기를 선발했다.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18명의 수플은 5개월간 기획부터 실행, 확산에 이르기까지 홍보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K-water를 알릴 계획이다.

### 수플이 주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수플 1기는 서로의 홍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5월 23일, K-water 인재개발원에서 K-water 홍보대사 '수플' 1기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수플 운영 계획 및 주요 홍보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팀 구성원들 간의 활동주제 도출과 세부 활동내용 등을 토의했다.

수플 1기는 K-water 캐릭터 '방울이'를 활용한 콘텐츠로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거나,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해 화제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를 통해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홍보방안', '미래세대 홍보방안', '사내 홍보방안' 등 3대 홍보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플 1기가 주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꾸러질 예정이다. K-water 직원들이 홍보활동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홍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동민 소양강댐지사 과장

"홍보는 우리 공사의 전신과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발, 따스함을 전달하는 손, 열정의 땀과 미소를 보여주는 얼굴. 수플을 통해 우리 공사의 전신을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해성 대청댐지사 대리

"K-water 홍보대사 수플 1기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 기대됩니다.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현 시화왕경처 대리

"K-water를 대표하는 직원 홍보대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 ‘녹색산업 해외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K-water가 국내 녹색산업의 육성과 물분야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K-water는 서울특별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외 수출 관련 분야별 전문가와 녹색산업 수출기업 38개 사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산업 해외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수출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K-water가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

안을 추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K-water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해외사업 수주 및 국내 물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물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한 바 있다.

2

### K-water, 네이버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5월 24일, K-water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및 네이버랩스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물관리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모형에 실제 기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예측·최적화 등 모의실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로, K-water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복잡성 및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물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트윈 기술의 물관리 적용 분야 확대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K-water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물관리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가뭄 및 극한 홍수 등 물 재해로부터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 K-water, 제58회 발명의 날 특허청장 표창 수상

K-water는 지난 5월 12일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특허청은 매년 발명의 날을 기념,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K-water는 우수기술 발굴,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지식재산권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물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가 물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해 온 그간의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K-water는 지난 1994년 ‘정수장 Alum 슬러지를 주재료로 한 단열벽돌의 제조방법’에 대한 첫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1,451건에 대한 지식재산

권을 출원했으며 1,020건의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기술이전 제도’를 통해 K-water가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에 이전해 기업의 혁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물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실·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 지원 등 우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4

### ‘충청권 대학(원)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진행

K-water가 오는 7월 31일까지 충청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지역 정보보호 인재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9월 진행 예정인 ‘2023 충청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와 연계해 진행되며, K-water와 국가정보원,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공모 분야는 수자원, 철도, 발전, 슈퍼컴, 바이오 5개 분야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공모전 누리집(ccsc2023.kr)에서 지정된 양식을 내려받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함께 사이버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전자우편(ccsc2023@kist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오는 9월 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5

### K-water,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설명회’ 실시

지난 5월 12일, K-water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라마다호텔에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설명회는 K-water가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계·소재,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등 7개 분야의 23개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K-water는 이 자리에서 참여기업들의 후속 투자유치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K-테스트베드 실증 지원제도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향후 글로벌 시장 확대 및 마케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와 글로벌 전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혁신기업이 국가 녹색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6

### K-water, 수열산업 관계기업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26일, K-water는 대전 본사에서 ‘수열산업 관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을 활용한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K-water는 수열 사업 추진현황과 수열 시스템 도입 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R & D), 해외 진출 등 신규 시장개척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water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

감독 | 제임스 맨골드  
개봉 | 2023년 6월 개봉 예정

전설적인 모험 시리즈 '인디애나 존스'의 다섯 번째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다. 무려 15년 만에 개봉하는 이 영화는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인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가 운명의 다이어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에 뛰어드는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네이버 영화

축제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기간 | 6월 17일  
장소 |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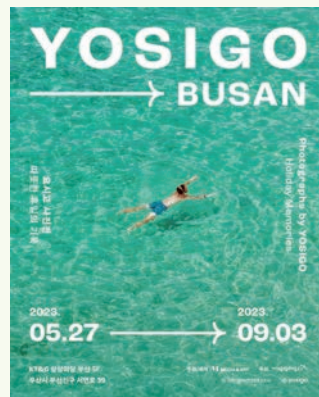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는 수상레저 스포츠 축제다. 카약과 SUP을 타고 아라뱃길을 완주하는 '카약퍼레이드'와 골판지로 카누를 만들고 직접 수상에서 운항해보는 '종이카누만들기'를 비롯한 카약, 패들보드, 인디언카누 등 수상레저 체험과 어린이 사생대회, 버스킹 공연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전시

요시고 사진전 : 따뜻한 휴일의 기록

기간 | 5월 27일 ~ 9월 3일  
장소 | KT&G 상상마당 부산



©KT&G 상상마당 부산

이 사진전에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여름 휴양지 풍경 사진을 포함해 마이애미, 두바이, 부다페스트 등 세계 여러 여행지를 기록한 35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5m 초대형 아트워크, 35mm 아날로그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진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 | 6월 9일 ~ 6월 11일  
장소 | 화성시 전곡항 및 제부도 일원



'화성 뱃놀이 축제'는 이색적인 요트 승선체험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문화 축제다. 올해 축제는 최초로 밤바다 승선체험을 진행하며, 요트 위에서 수상 공연을 즐기는 '풍류단의 항해와 바람의 사신단 시민 댄스 퍼레이드', 무동력 기구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햇별이 짹짹한  
6월에도  
수놓은  
문화 속으로

햇별이 짹짹하게 내리쬐는 6월에도 우리의 감성을 채워줄 다채로운 행사와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물과 자연을 주제로 힐링할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을 지금 소개한다.

글. 이종철

시민과 함께하는 K-water 옥외글판



한 문장의 울림이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K-water 옥외글판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축하합니다

#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5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손○건(010-\*\*\*\*-1574)



신○환(010-\*\*\*\*-1801)



민○안(010-\*\*\*\*-3830)



이○미(010-\*\*\*\*-5073)



정○하(010-\*\*\*\*-3055)

### #kwater초순수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10명  
 @rachel201607 | @miyo\_523 | @redfish0425 | @sungeun.j | @funfunny09  
 @zerocycle | @young28212 | @minzy\_zzz | @roseyam10 | @win\_jun.o5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있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트콘 20명

정○진 010-****-6091	김○석 010-****-0871	김○훈 010-****-5390	이○정 010-****-8971
남○섭 010-****-7370	김○순 010-****-2646	남○정 010-****-9517	차○수 010-****-2252
김○준 010-****-2564	박○민 010-****-9507	유○진 010-****-0015	김○정 010-****-8806
한○국 010-****-3632	김○나 010-****-5949	이○준 010-****-9524	강○쁨 010-****-0727
채○규 010-****-5498	김○진 010-****-3522	김○수 010-****-8392	박○연 010-****-8489

이벤트 선물 발송일 6월 15일경  
 ※ 6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 K-water와 함께 하는 워터라운드 도시 만들기

클라우드 기반의 워터라운드는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로 디지털 플랫폼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K-water의 워터라운드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K-water의 마스코트 '방울이'**  
 방울이도 워터라운드를 활용합니다~

**워터라운드**  
 다양한 물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전 세계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워터라운드 비즈니스 창출**  
 워터라운드를 통해 참여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합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6월 25일  
 선물 발송일 7월 15일경  
 ※ 7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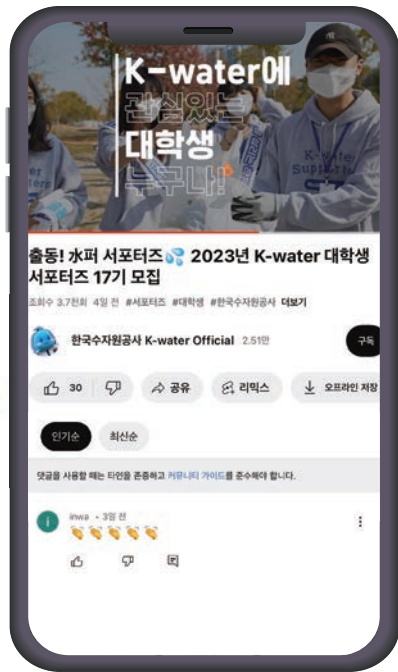


# 여름이 시작된 6월에도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찬사  
지금 바로 만나기!



와, 여름이다. 지난해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를 즐기고 싶다면 K-water SNS를 찾아보자. 더운 여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흥미로운 콘텐츠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하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http://www.youtube.com/kwatertv)

**2023년 K-water 대학생 서포터즈 17기 모집**  
웹툰, 글쓰기,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 거기에 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면 주목해 보자. 대한민국의 물을 책임지고 환경까지 생각한 물 종합 플랫폼 K-water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활동비 지급, 유니폼 지급, 콘텐츠 교육까지 혜택이 쏟아지는 '가퍼 서포터즈'에 지원해 보자.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K-water대학생서포터즈 #가퍼모집 #대학생 #누구나 #도전해봐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http://blog.naver.com/ilovekwater)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 이유  
(Feat. 자외선 차단제)**



**물만 담아 먹은 텀블러,  
어떻게 세척해야 할까?**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eet](http://twitter.com/kwater_tweet)



**앗 들켰다..!**  
히히.. 당 충전은 하면서 일해야지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K-water #바우이 #바우이 #가퍼모집 #대학생 #누구나 #도전해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lovekwater](http://www.instagram.com/ilovekwater)



호기심도 가득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방울이는 일할 때는 말은 업무에 집중하고, 쉬 때는 제대로 쉰다. 프로 일잘러 방울이의 일상이 궁금하다면 K-water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보자. 네 컷 만화와 이벤트에 좋아요를 누르고 응원 댓글도 달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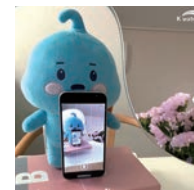
#폭시폭시 #바우이 #스마트우지 #배경화면



#바우이 네컷 만화 #바우이 #바우이 #가퍼모집 #대학생 #누구나 #도전해봐



#나눔중간재 #나눔나눔



#바우이 #성카 #가물속바우이 #스마일



**디카페인 커피에는 정말 카페인이 없을까?**  
카페인 부담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디카페인 커피에는 정말 카페인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디카페인 #커피 #디카페인음료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aterworld](http://www.facebook.com/kwaterworld)



# 워터라운드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된 20분께는  
배스킨라빈스 패밀리를 보내드립니다.

6월의 테마 키워드  
워터라운드

위에 주어진 5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N행시 예시**

워터라운드는 참여기업의 성장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와 같이  
운명처럼 만난 워터라운드를 통해 물산업 스타트업들이  
드러우는 햇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 N행시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벤트 참여하기



## N행시 이벤트 참여방법

N행시를 지으셨다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웹진 구독 신청하기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패밀리(20명)

접수 마감일 6월 25일

선물 발송일 7월 15일경

※ 7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응모방법

1.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2. 웹진 구독신청하기에 동의해 주세요.

※ 기존 웹진 구독자는 취소 후 재구독 하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문의 : 070-5069-9512